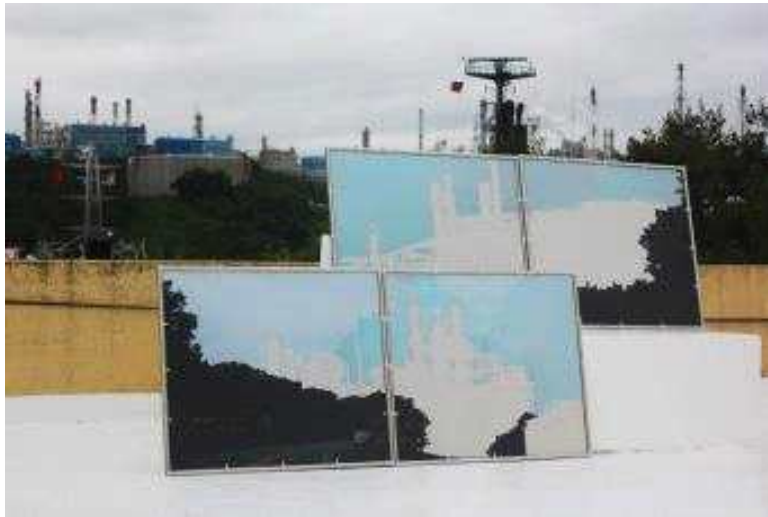


보도일시 | 2024년 10월 30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창작촌 레지던시 결과보고전 시작”

- 첫 번째, 반가연 개인전 <집으로 가는 길> -



▲ 반가연 작가 대표작(장생포로/75x63cm/스테인레스 위에 UV프린트.2024)

(재)고래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예술창작촌 레지던시 입주작가의 결과물 전시회가 30일부터 12월 17일까지 ‘창작 스튜디오 131’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시각 예술 분야 반가연 작가와 김소형 작가, 용하현 작가 등 3명의 작가가 장소적 영감으로 작업한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선보이는 릴레이 개인전이다.

이들 작가는 10개월간 외부 프로젝트 수행과 전시 활동을 펼치면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며, 지역사회와 공감대를 형성하며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해 왔다.

이번 행사의 첫 전시전은 창작스튜디오 131 레지던시 9기 반가연 작가의 개인전으로 <집으로 가는 길>이며, 전시 작품은 산업의 형태나 공동체의 규모, 전경 등을 관찰한 것을 조각내어 콜라주로 표현한 그래픽아트 20여 점이다.

창작 스튜디오131 1층에서 열리는 전시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관람할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이다.

자세한 내용은 울산남구문화예술창작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래문화재단 전시기획팀(☎ 052-276-0131)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10. 29.
